

THE LORDS OF GILLETTE

Ferdinando Frega — Nando the Scribe

Gillettenarrative.com

GILLETTE의 영주들

THE COMPANY · 06

Gillette, 1980년대–1990년대–2000년대

이름값을 하는 회사라면 어디나 다른 모든 시기와 구별되는 마법 같은 시기가 있다 — 강도에서, 탁월함에서, 성과에서, 야망에서, 시장에서 — 그때는 모든 것이 행동의 기억이 되고, 결코 기억의 행동이 되지 않는다. Gillette의 세계에서 언제나 그러했듯이.

그곳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뤄 낸 비범한 일들은 하나의 독특한 특성에 묶여 있다: 자신의 성공을 결코 알리지 않고, 시장에 의해 인정받는 것 — 시장은 인정하고, 정당화하고,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이다.

Gillette의 사람들은 그 30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, 그것을 하나하나의 사실 속에서 증명했다 —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 속에서.

그들에게, 더 나은 삶으로 떠난 나의 모든 동료에게, 아직 여기 있는 이들에게, 그리고 지금 브랜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다.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나의 펜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, 나는 아무것도 다시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.

역사는 행동의 총합이고, 저자는, 작가는 자기 책상 앞의 필경사일 뿐이다. 있었던 일의 기억을 기록하는 — 온 인류가 결코 잊지 않도록:

GILLETTE의 영주들

Ferdinando